

강진군민·향우, 강진만 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 힘 보탠다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 보고회...전략 수립·기본구상 용역 내용 공유 나무 기증 3월부터 73건 984본 접수...추석 연휴 기간 독려 박차

“강진만 생태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읍시다.” 강진군은 최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원회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사항 보고회는 서순철 부군수, 오선욱 추진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기증

운동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진위원들의 기증 참여 사항 공유와 함께 읍면별로 기증 접수 현황도 공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 향후 강진군 지방정원을 포함해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전략수립 및 기본구상 용역사항을 강진군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강진군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원회 조직구성원이 읍면 사회단체장까지 포함돼 있고 지역 여론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 추석연휴에 군민들과 향우들에게 적극 홍보해 자발적으로 나무기증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강진군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용역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진군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구성돼 생태공원과 지방 정원 일원의 조경사업에 군민과 향우 등에게 나무기증 운동을 전개하고 군민의 정원문화 홍보를 자발적으로 추진해 하 나된 힘으로 강진만 생태공원을 녹색 경관으로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무 기증 접수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총 73건에 984본이 접수됐다. 이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3건 167본이 접수됐고 활용가능 본수는 72본이다. 강진군은 앞으로 주민주도형 나무기증 참여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기증자의 표지석 설치 계획도 갖고 있다.

강진군에 나무를 기증하고 싶은 군민과 향우들은 올해 10월 말까지 읍·면사무소나 전략사업추진단(061-430-53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순철 강진군 부군수는 “추진위원들의 적극적인 나무기증 참여로 지방정원이 의미있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용역도 많이 홍보해 군민과 향우들의 적극적인 나무기증 운동이 전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군은 최근 연 ‘강진군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원회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참가자들이 강진만 생태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담양군이 추석인 29일 메타세콰이아길 등 주요 관광지 4곳을 무료 개방한다. <담양군 제공>

담양 대표관광지 4곳 추석날 하루 무료 개방

죽녹원·메타랜드·소쇄원 등

담양군이 추석인 29일 죽녹원을 포함한 대표 관광지 4곳을 무료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9일 입장료 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지는 죽녹원, 메타랜드(메타세콰이아길+메타프로방스), 소쇄원, 가마골생태공원 등 4곳이다. 성인 기준 메타세콰이아길 입장료는 2000원이며, 죽녹원 3000원, 소쇄원 2000원, 가마골생

태공원 3000원 등이다. 담양군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요 관광지를 무료 개방할 뿐만 아니라 관광 안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관광지의 환경을 정비하고 관광 시설물을 점검해 방문객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 고향과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함평천지전통시장, 추석연휴 농축산물 할인 행사

농식품부 할인지원사업 선정

함평군은 함평천지전통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3년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는 21일부터 27일까지 시장 내 환급 참여 점포 13곳에서 진행된다.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입한 후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과 교환권을 시장 내 중앙광장에 마련된 상품권 교환처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온누리상품권 1만원, 6만7000원 이상 시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행사기간 중 1인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농축산물 할인행사로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해외산 농축산물 제품 등은 행사 품목에서 제외하며, 상품권 교환은 행사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함평천지전통시장 전경.

서성도 함평천지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추석을 맞아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해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고객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

로써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경찰, 추석 맞아 전통시장 특별순찰 활동

장성경찰은 추석을 맞아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전통시장에 대해 집중순찰을 실시했다.

장성경찰서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함평 전통시장을 방문해 공중화장실 등 범죄취약요소를 점검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순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상가와 전통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행자 사고 예방 및 교통 법규 준수와 마약·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전병형 장성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이상동기 범

죄에 대응해 다중밀집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활동으로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마을 세무사' 1년 365일 세무 상담 오지 찾아가는 서비스도

나주시는 영세 사업자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해주는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나주시가 위촉한 마을 세무사(4명)는 연중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상담 분야는 국세와 지방세, 300만원 이하 과세 불복 건 등이다. 무료 전화 상담을 받거나 '행복나주이동봉사단'의 마을 방문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에는 마을 세무사가 산포면 산제경로당을 찾아 세무 상담을 했다.

이달 25일에는 병행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열리는 이·통장회의를 찾아 상담을 벌일 방침이다. 마을 세무사는 이날 국세와 지방세 세무별 과세기준, 세율 등 꼭 알아야 할 세금 기본상식 교육을 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행정복지센터 전광판과 현수막, 시청 누리집, 지방세 납부고지서, 읍·면·동 각종 회의 때 마을 세무사 운영을 홍보하고 있다.

마을 세무사 상담에 대한 자세한 문은 나주시 세무과 세정팀(061-339-8532)으로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많은 이용을 통해 세무 관련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은 지난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구북구 군수와 강신기 대표이사 등 발기인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군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출범 가시화

발기인 25명 참석 창립총회

화순지역 문화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브랜드 구축을 이끌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발기인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군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구북구 이사장(화순군수)과 강신기 대표이사 등 임원 선임,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 등 재단설립 제반 사항 승인 등을 주요 안건으로 진행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등 당연직 이사 5명, 선임직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10월 공식 출범 예정인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은 능주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사무실을 두고 경영지원팀, 관광 기획 및 마케팅팀, 문화진흥팀 3개 팀 8명으로 꾸려진다.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강신기 대표이사는 “화순군이 가진 풍부한 인문학적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 자원을 토대로 민간 부문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하겠다”며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해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경찰 이상동기범죄 예방 지역치안협의회

함평경찰이 지난 19일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해 함평군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함평군 지역치안협의회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윤영관 함평군의회 의장, 범민경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현 함평소방서장, 이광재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장 등 함평지역 각 기관장 및 협력단체장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함평군 지역치안협의회에서는 최근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설명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치료 연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 다중밀집장소 무인방범시설 확충, 교통안전시설물 확

충, 범죄 취약지역 합동순찰 등 민·관·경 협업을 통한 치안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창기 함평경찰서장은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치안인프라를 확충하고, 빈틈없는 치안활동을 펼쳐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사업, 군민이 직접 선정

25일까지 후보사업 설문조사

장성군이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추진할 사업 확정을 위해 군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장성군은 오는 2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고향사랑기금사업' 최종 확정을 위해 후보사업에 대한 군민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활용해 군민 복리 증진, 취약 주민 지원 등을 도모하게 된다.

장성군은 앞서 지난 6월 기금사업 제안 공모 추

진에 이어 8월 기금사업 발굴보고회 개최를 통해 공식성, 수혜 범위,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심층 검토했다.

이 가운데 공모 선정작 3건과 자체 발굴 3건을 전남도에 자문 의뢰한 결과 '119생명 팔찌 보급', '육아용품 대여·장난감 은행 설치',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향토문화유산 소규모 수산·보수' 등 4건을 군민 설문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장성군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